

폭염기 이동노동자 쉼터 휴일 운영 확대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밑그림

전주시, 평년보다 2주 앞당겨 운영 돌입... 주말·휴일 개방 확대로 폭염 속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예년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대리운전·택배 등 야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예년보다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달·대리운전·택배 등 야외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예년보다 운영 개시 시기를 약 2주 앞당겨 지난 14일부터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돌입했으며, 이 쉼터는 오는 9월까지 일요일을 포함한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기존에는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3시까지 운영했으나, 폭염기에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 3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주말과 휴일에도 이동노동자들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전주지역 이동노동자 쉼터는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와 덕진구 송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등 2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등 하루 평균 13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이용하고 있다.

시는 쉼터 내 냉방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냉장 보관한 생수를 비치해 무더위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폭염 기간 생수 비치량을 확대하고, 냉방기기 작동 상태와 쉼터 위

생 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유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쉼터 휴일 운영 확대가 여름철 운영질환 예방과 이동노동자의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동노동자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완산구 이동노동자 쉼터와 비보이광장 일원에서 배달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교통안전교육, 노무·건강 상담이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는 이륜차 주요 부품 점검과 소모품 교체 지원, 폭염 대비 안전 물품 배부 등이 이뤄져 배달노동자들의 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에 힘을 보탤다.

시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 전문기관 연계 상담 등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동노동자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노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업무 특성상 폭염과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운영질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무더위 속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시, 건축 설계 공모 '팔복나라울' 당선작 선정... 2028년 준공 목표

전주산업단지 청년 근로자들의 문화와 여가 거점 공간이 될 청년문화센터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전주시는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 공모 결과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가 제출한 '팔복나라울'을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청년문화센터는 팔복동2가 339-22번지 일원에 연면적 약 40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 교육·문화공간, 창업·창작 및 프로젝트 공간을 갖춘 청년 친화형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된다.

시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거머쥐게 됐다. 또, 입상한 4개 팀에는 총 8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에 대해 산업단지 및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열린 공간 구성이 우수하고, 체육·문화·창업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청년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 계획과 향후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동선 구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년문화센터가 들어서는 부지에는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휴게공간 등도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시는 이를 통해 팔복동 일대를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문화 허브'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시민 후원으로 이어지는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

전주시복지재단, 8년째 간병 공백 612건 지원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8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간병 공백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주 시 전체 세대의 약 43%가 1인 가구인 가운데,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치료와 회복은 물론 생계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시민들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입원 치료 중 필수 간병을 지원하는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12건, 2억 3000만 원을



재단법인 전주시복지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사랑나눔 간병비 지원사업'이 올해로 8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앞장섰다.

이는 공적 제도가 미처 닿지 못하는 급성기 간병 공백을 시민들의 나눔을 통해 메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간병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 치료 중인 취약 계층에게 최대 연 7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이다.

재단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돌봄고립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별도의 보조금 없이 시민과 지역 기업·단체의 후원으로 조성된 기부금 100%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따뜻한 나눔은 입원 중 돌봄 위기를 겪는 이웃들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은 단순 간병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례 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대상자의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재단은 다자녀를 양육하던 중 암 투병으로 돌봄 공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에 긴급 간병비를 지원하고, 이후 사례 관리를 통해 성장기 자녀들의 방한복을 지원하는 등 치료 안정과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본격 추진

전주시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 '함께 금융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아동·청소년부터 청년, 직장인, 노인 세대, 장애인 및 취약계층까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시민들의 금융 이해도 향상과 건전한 금융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대상 '함께 금융인재 탐험대' △정

년 대상 '함께 시작하는 금융상식' △직장인 대상 '함께 쌓아가는 금융자산' △노인 대상 '함께 대비하는 노후 금융' △장애인 및 취약계층 대상 '함께 예방하는 금융사기'와 함께 힘을 주는 '지킴이금융' 등이다.

또한 시민들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최근 증가하는 SNS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연금·투자·노후자산 관리 등 실생활 중심 교육을 통해 금융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장기 장애인 복지증진 종합계획 수립 착수

전주시가 지역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장기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고 있다.

일례로 재단은 다자녀를 양육하던 중 암 투병으로 돌봄 공백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가구에 긴급 간병비를 지원하고, 이후 사례 관리를 통해 성장기 자녀들의 방한복을 지원하는 등 치료 안정과 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런 연구용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변화하는 복지 수요와 정책 환경을 반영해 향후 5년(2027년

~2031년)간 추진할 전주시 장애인 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전주시 장애인 정책 자원 현황 분석 및 발전 방향 제시 △장애인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자 실태·욕구 조사 △공공 및 민간 기관 종사자, 전문가 의견 조사(FGD) △전주시 장애인복지와 소관 각 조례에 따른 계획 반영 △장애인 시책의 수립·시행 △기타 장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지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